

1000여 달리기, 영산강변 빛속 레이스 즐겼다

제21회 호남마라톤 성료

남 하프 김영집·10km 박종관 우승
여 하프 김미선·10km 김유진 우승

제21회 호남마라톤 참가자들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영산강변을 달리며 시원한 봄날의 빛속 레이스를 즐겼다.

광주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광장에서 나주 영산교를 돌아오는 호남마라톤대회가 21일 오전 마라톤 동호인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내 마라톤 저변 확산과 생활체육 활성화, 마라톤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치고 힘든 일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일보사가 주최하고, 광주시육상연맹·(사)전일엔컬스·마라톤세상 공동 주관, 전남도·광주시교육청 후원으로 열린 대회에 참가한 달리기들은 차분한 봄비로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얻고 동반자들과 함께 화합의 레이스를 선보였다.

이번 대회의 개최식에는 양대동 광주시육상연맹 상임부회장과 안재오 광주시체육회 스포츠사업부장 등이 참석,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을 대신해 개최 선언을 한 문병익 재무이사는 "호남마라톤은 1960년 일어난 4·19 혁명을 기념하



제21회 호남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국내·외 마라토너 1000여명이 21일 광주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광장을 출발해 승촌보를 통과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남일보사 주최, 광주시육상연맹·(사)전일엔컬스·마라톤세상 공동주관, 전남도·광주시교육청 후원으로 열렸다.

기 위해 마련한 대회로, 셋노란 유채꽃과 함께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유서깊은 대회다"며 "개인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이 대회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평생 기억에 남을 감동의 레이스를 펼치시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달리기들은 이날 10km와 하프 등 2개

부문에서 열띤 레이스를 펼쳤다. 남자 하프코스 우승은 김영집(50·목포마라톤클럽)씨가 차지했다. 김영집씨는 1시간18분42초29의 기록으로 2위 이찬화(1시간20분07초55)씨에 불과 1분여 앞설 정도로 치열한 레이스를 펼쳤다. 3위는 정용원(1시간20분40초03·코딱이)씨가 기록했다.

여자부 하프코스 우승자는 김미선(48)씨다. 김미선씨는 1시간41분08초43

의 기록으로 2위 안유리(1시간43분08초15·무등마라톤)씨를 2분 차로 따돌리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어 김혜옥(1시간43분59초12·건강한사람들마라톤클럽)씨가 3위로 골인했다.

10km남자부에선박종관(40·목포러닝스쿨)씨가 35분51초35의 기록으로 2위 문복식(36분07초19)씨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3위는 36분25초39

로 결승선을 통과한 김승빈씨였다.

10km 여자부는 김유진(49)씨가 42분35초58로 1위를 차지했다. 42분41초34로 1위에 6초차 뒤져 골인한 김진아씨가 2위를 기록했고, 3위 신호정(44분40초65)씨가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12·13·14면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호남마라톤 교통 협조 감사합니다

윤석열-이재명, 이번주 첫 영수회담 갖는다

尹 취임 1년11개월만에 성사
민생추경·채상병 특검 등 의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중 용산에서 만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 실무진은 22일 영수회담 시기와 의

제, 참석자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에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화는 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제안했으며 이후 이관섭 비서실장이 오후 1

시께 이 대표 측에 전화를 해 먼저 제안해 5분동안 이뤄졌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당시인 2022년 8월에도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 축하한 바는 있으나, 만남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제안으로 취임 후 1년 11개월 만의 첫 영

수회담이 된다.

통화 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동시에 브리핑을 통해 통화 내용을 알렸다.

이도훈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먼저 이재명 대표의 (총선)당선을 축하하고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다음 주 행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며 "일단 만나 소통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

화도 하면서 국정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대통령께서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저희가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영수회담에서 두 사람은 4·10총선 이후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왔던 민생 회복 부문, 국회 개혁과 개헌 관련 내용, 윤석열 정권의 실정·실책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